「아 재」考

——方言調査方法의 한 反省——

李 翊 燮*

1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方言調査에 있어서의 典型인 한 方法은 표준어의 어떤 어휘에 對當되는 한 方言形을 찾아 그것들을 짝짓는 일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리고 이 일은 거의 모든 경우, 方言研究의 主目的이 국어의 歷史的 研究의 한 方便에 있다는 태도 위에서 行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법과 태도는 자연 方言調査上의 몇가지 문젯점을 일으킨 직접적 要因이 되었던 것 같다. 우선 우리는 그동안의 方言調査에 動員되어 있던 項目이 주로 옛 文獻(鷄林類事, 諺解類 등)에 있는 어휘들이었다는 점을 注目코자 한다. 우리는 初期의 小倉進平 교수의 方言集[1]에서부터 最近 金亨奎 교수의 方言集[2]에 이르기까지 「하늘」이 계속 그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음을 안다. 동시에 그 「하늘」이 별로 이렇다 할 方言形으로 分化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이들 方言集을 통하여 알고

---

* 서울大學校 敎授(國語學 專攻)

(1) 小倉進平, 朝鮮方言の 研究(東京, 1944)

(2) 金亨奎, 韓國方言研究(서울大學校 出版部, 1974)

(3) 몇 方言集은 調査項目에서 이 「하늘」을 빼고 있다. 최현배 교수의 「시골말 캐기 잡책」(正音社, 1936)이나 崔鶴根 교수의 「全羅南道方言研究」(서울 韓國研究院, 1962)등이 그러한데 현명한 조처라 생각된다.

있다. 이러한 「하늘」類의 取擇,[3] 이것이 바로 方言調査를 古語의 어떤 殘滓를 찾기 위한 한 方便으로 여긴 一面의 表出,[4] 또는 그동안의 方言硏究者들의 無批判的인 踏襲 경향의 한 증거로 우리는 보고자 한다.[5]

우리로서는 「하늘」 또는 「사람」처럼 方言間의 차이를 거의 드러내 주지 못하는, 無味한 어휘보다는 多岐하게 分化된 方言形을 가지는, 보다 生氣있는 어휘를 찾도록 그동안 힘써 왔어야 했고 또 앞으로도 힘써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6] 아울러 이제까지 와서도 中間音 「ㅂ」이니 中間音 「ㅅ」이니 하는 데에 너무 執着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方言硏究가 國語의 歷史的 硏究의 한 補助手段만은 아니라는 깨우침이 널리 퍼져 그 테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이며 이것이 우선 調査項目의 選定에서부터 實現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方言調査上의 한 문젯점은, 표준어에 對當되는 어떤 方言形을 찾아 짝짓는다고 할 때 너무 安易하게 兩者 間의 1對1의 一致를 믿어 왔다는 사실이다. 좀 지나친 例이지만, 한 전라남도 方言集[7]은 「참외」의 方言形으로 「차매, 차뫼」 이외에 「김마까, 마까」 등

(4) 우리는 「하늘」이 한 때 「하ᄂᆞᆯ」과 같이 「ㆍ」를 가졌던 어휘임으로 해서 調査項目으로서의 價値를 인정받았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5) 좀 다른 이야기지만, 方言學者들의 安逸한 踏襲 태도는 거의 모든 方言集이 天文類의 어휘를 첫머리에 놓고 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 方言集의 順序가 반드시 現地에 나가 調査할 때의 順序와 一致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現地에 나가 家屋이나 農作物 또는 人體에 관한 어휘처럼 수변에서 당장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을 수 있는 것을 놓아 두고, 「하늘」이니 「가랑비」니 하는 天文類의 어휘에서부터 물어간다는 것은 비록 東洋的일는지는 모르나 不自然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西歐에서처럼 人體에서부터 묻기도 쉬스러운 것 같았다. 農作物이나 農具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話題의 실마리를 열기 좋고 또 서울 사람이라 잘 몰라서 그러나보다 싶어 被調査者로 하여금 쉽게 가르치는 者의 姿勢를 갖게 해 주는 點에서 利點이 있는 것 같았다.

(6) 이 점에 대해서는 拙稿, 「國語方言硏究史」(국어국문학 58~60호, 1972), p. 392에서도 간단히 論及한 일이 있다.

(7) 崔鶴根, 前揭書

을 들고 있다. (더구나 「김마까」는 光州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報告되어 있다.) 「김마까」가 「참외」의 정확한 對當者라고는 믿기 어렵다. (더구나 그것이 전라남도 중에서 광주에만 쓰이는 光州方言이라고는 더욱 믿기 어렵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同書에는 「마음」의 전라남도 方言으로 「마음, 담」 이외에 「맘씨, 맘뽀, 심뽀, 속」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도 표준어 「마음」에 맞먹는 方言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표준어에도 「마음씨, 마음보, 심보, 속」이 다 있다. 이들은 무엇인가 微差를 가지는 各己 다른 단어들인 만큼, 「목」과 「목아지」를 한 項目으로 합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項目 속에 몰아 同質의 어휘로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 例로는 한 경상남도 方言集[8]의 「산」(山)項에 「산」 이외에 「뫼, 갓, 까밭, 까끔」이 끼어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까밭」이 과연 「산」과 同價인지 우리는 疑問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類의 문젯점을 아주 안 가지기는 어느 方言集이나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各 方言의 意味(槪念)構造가 各各 다른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른 意味構造를 정확히 對比하기란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一例로 金亨奎 교수의 上記 方言集에서 「볕」(陽)의 江陵 方言形을 「빛」이라고 한 것을 보기로 하자. 江陵에서는 「볕이 뜨겁다」와 같은 표현은 들어 보기 어렵다. 대신 「햇빛이 뜨겁다」라는 표현이 잘 쓰인다. 이렇게 보면 「볕」의 江陵 方言은 「빛」일 것도 같다. 그러나 「빛이 뜨겁다」는 말은 역시 어색하게 들린다. 여기서 우리는 「뙤약볕」의 江陵 方言이 「땡삗」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따라서 「볕」의 江陵 方言은 역시 「빛」이기보다는 「'벧」[9]이라고 봄이 더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8) 金永泰, 慶尙南道方言硏究 (서울, 1975)

(9) 本稿에서의 音聲轉寫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로마字에 의한 발음부호로 하지 않는다. 대신 音韻分析을 거쳐 한글로 轉寫하되 基本形을 定하여 그것으로 한 形態를 대표시키기로 한다. 音長과 聲調가 東海岸의 方言(襄陽은 除外)에서 音韻의 자격을 갖는 관계로 轉寫되되 音長이나 聲調 모두 第1音節에서만 對立을 보이기 때문에 第1音節에만 표시하기로 하겠다. 이 지

을 하게 된다. 어떻든 「볕」처럼 쉽게 指示도 안 되고 말로 설명키도 용이치 않은 어휘를 특히 「빛」과 구분해서 캐어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 분명하다.

이런 어려움은 具體的인 動植物名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소라」를 調査項目으로 준비해 가지고 三陟 지방으로 갔다고 하자. 쉽게 「골벵이」라는 方言形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뜻 「소라」와 「골벵이」를 同價의 어휘(同義異名)라고 결론짓고 말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調査項目 속에 「우렁이」나 「다슬기」 등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골벵이」가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이름임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소라」와 「골벵이」가 同價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方言間의 意味構造의 차이가 우리의 作業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 例도 그러한 종류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골벵이」처럼 표준어 여러개가 한 어휘로 포괄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 하나가 方言에서 여러 단어, 즉 여러 意味로 分化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가 앞의 「골벵이」 경우보다 더 注意를 要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一例로 三陟의 일부 지역에서 「다래끼」(眼瞼炎)는 눈의 웃편, 아랫편 어느쪽에 났느냐에 따라 「다리끼」와 「대:지비」로 區分되는데, 이 경우 자칫 잘못하여 A地點에서는 「다리끼」만을, B地點에서는 「대:지비」만을 채집하여, 사실에 있어서는 同一한 어휘를 쓰는 A, B 두 地點을 이 어휘에서 區分되는 것으로 誤解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0) 「골벵이」와 같은 어휘에서는 적어도 이런 위험성은 없는 것이다.

역의 音長 및 聲調 體系에 대해서는 拙稿 「嶺東方言의 Suprasegmental Phoneme 體系」(同大語文 2輯, 1972)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실제로 이러한 實例를 우리는 上記 「韓國方言硏究」의 「먼지」項(p. 22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지」의 강릉 方言으로는 mundebi만을, 양양方言으로는 mundʒi만을 채록하고 있어 마치 두 방언이 이 어휘에서 區分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강릉의 「문데비」는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를 가리키는 어휘이며 방바닥등의 먼지는 역시 「문지」다. 양양에서도 이 두가지가 區分되는데 「문데비」 대신 「문데기」가 쓰인다.

그런데 여기서 提起되는 한 문제는, 어떻게 일일이 「다래끼」가 二分될지 안 될지, 어떤 표준어가 어떤 方言에서는 二分될지 三分될지를 豫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사실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은 좋은 提報者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았다.(11) 위의 「다래끼」對「대지비」의 區別만 하더라도 필자가 區分해 묻지도 않았는데 提報者가 스스로 區別해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한번 이러한 知識이 생기면 다음 地點에 가서는 이쪽에서 먼저 그것을 區分해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결국은 調査者가 많은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調査者 스스로의 정확한 知識과 경험의 必要性을 다음 한 例로 더욱 强調해 두고자 한다. 上揭 경상남도 方言集은 「도토리」項에 「도트리(도오털, 도토리), 꿀뱀, 상소리」를 南海의 方言으로 넣고 있다. 그리고 「韓國方言硏究」에서는 「상수리, 도토리」를 한 項으로 묶어 區分없이 다루고 있다.(12)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모두가 同一 物體를 가리키는 이름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표준어에도 도토리 종류가 달리는 나무가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열매 이름도 「도토리, 상수리」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地方에 가 보아도 대개 몇 種類로는 구별되어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한 例로 三陟에서는 「도투리, 꿀밤, 쏙시리」등으로 區分되고 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지식, 나무의 키며 나뭇잎이나 그 열매의 모양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13) 그 정확한 方

(11) 좋은 提報者를 만난다는 것은 方言調査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運에 속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필자는 하고 있다. 참으로 運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사람을 끝내 못 만나고 2,3日을 불만스럽게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運에 맡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첫 하루쯤 가볍게 4,5名을 만나 보다 보면 그중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게 되며, 不然이면 다시 몇 사람을 더 만나 보아야 할것이다.

(12) 金永泰, 上揭書 p. 91 및 金亨奎, 上揭書 第354項.

(13) 動植物名이나 器具名을 채집할 경우에는 圖鑑이나 그림을 援用하는 것이 큰 便宜를 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物體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言形을 채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以上의 몇 實例에서 우리는 표준어와 1對1로 對當되는 어떤 方言의 짝을 찾는다는 일이 결코 수월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위의 實例들은 그중 간단하다는 어휘(그중에서도 名詞)에서의 例들이었는데 接辭나 文法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 어려움이 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14] 이 作業이 결코 한 두마디의 간단간단한 質問으로 安逸하게 끝내 버릴 그런 性質의 것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된다.

金亨奎 교수의 上揭書 序言은 말한다. "한 고을에 한 곳, 그리고 하루 정도 머물면서 몇 사람에게 물어서 기록한 이 재료가 어느 정도 정확하고 가치있을는지 의심이 간다." 1,400個가 넘는 項目을 무슨 方法으로 '하루 정도'에 조사해 낼 수 있었는지 明言된 바 없어 알 길이 없으나, 우리는 이러한 「얕고 넓게」主義가 그동안의 많은 方言集이 가진 공통된 弊端으로서 그들 方言集을 不信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으며[15]

(14) 한 例로 敬語法 중 반말體의 各 方言에서의 用法등을 채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휘라도 副詞類는 文法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面이 있다. 필자는 몇년전 同僚들과 江陵方言의 「오부랭이」와 「마커」가 대체로「모두, 몽땅」의 뜻을 가리키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微差를 가지며 어떻게 달리 쓰이는지를 캐내기 위해 苦心한 바 있는데 끝내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내고 말았던 일이 있다. 그러나 이는 方言과 표준어의 對當 문제라기보다는 한 표준어 內에서도 감각적으로는 뭔가 微差가 느껴지면서도 그것을 記述해 내기는 어려운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15) 方言調査를 焦急하게 서두는 데서 오는 폐단 한가지를 例示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結果를 不信하게 하는 實例를 하나만 보이겠다. 上揭「韓國方言硏究」는「꽃」의 方言이 慶南에서는 전부「꼴」으로 나타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어 「진달래」의 慶南方言은 「참꽃」이라고 報告하고 있다. 우리는 前者가 맞은 報告라면 後者는 틀리는 報告라고 생각한다. 前者가 맞다면 後者는 「참꼴」이 되는 것이 正常이겠기 때문이다. 現地調査時에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많은 대답이 指定詞로 끝나기가 쉽다. "이것은 무어라고 부릅니까?" "참꼬치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참꽃」이라고 적어 버리고 말기 쉽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다시 「—에」나 「—으로」와 같은 助詞가 연결되도록 誘導하면서 活用을 시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한 地點에서 하루 이틀에 1,000餘個를(아니 5백개라도) 조사하는 方式으로 可能하다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小倉進平이 남기고 간 한 害毒인데 都是 基本形의 중요성

동시에 國語方言學을 草創期 小倉進平 교수의 勞作의 水準을 뛰어넘지 못하게 한 一 要因이 되었다고 믿는다.

결국 지금까지 필자가 論해 온 바는 우리가 앞으로 指向할 方向은 「좁고 깊게」主義가 아니겠느냐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재」라는, 지금껏 우리에게 거의 觀心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던 한 親族關係語를 통해서 계속 論議해 보고자 한다.

「아재」는 뒤에서 보듯 全國 꽤 여러 지역에서 常用되는 어휘이면서 地域 間의 方言差를 상당히 예민하게 반영해 주는, 드물게 보는 興味津津한 어휘다. 그런데도 이 「아재」는 지금껏 빛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前述한 그동안의 國語方言硏究의 風土로 보면 당연한 歸結일는지도 모른다. 아니 오랜 동안의 「아재」의 未發掘은 바로 그러한 風土, 그처럼 歷史主義的이고 安逸한 方法의 한 산 證據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른다. 그러한 觀點에서 本稿는 序頭부터 꽤 장황하게 方法論上의 문젯점부터 反省해 왔던 것이지만, 「아재」는 그 以外에도 더 많은 反省거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다.

「아재」의 考察은 그 자체로서도 퍽 흥미롭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이를 方言調査 및 硏究의 方法論과 관련시키면서 論述을 계속해 가기로 하겠다. 필자는 아직 「아재」에 대한 全國 규모의 調査를 하지 못한 처지에 있지만 本稿의 資料만으로도 몇가지 문제만은 흥미롭게 提起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아재」는 國語辭典들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체로 「아저씨, 아주버

에 대한 認識들이 부족하다. 「꽃」의 方言만 보아도 「꽃」 以外에 「꼴, 꼳, 꼿」 등 그 語末子音에 따라 여러가지로 分化되는데 이것을 休止(pause) 앞의 形態인 〔k'ot〕으로 轉寫하는 弊習은 이제 버려져야 할 것이다. 이 點에 대해선 拙稿, 「國語方言硏究史」 p. 392에서도 지적한 일이 있지만, 말을 바꾸면 從來의 轉寫法은 소위 word form의 採取에만 專念하고 lexeme의 採取에는 無心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金亨奎 교수의 「韓國方言硏究」가 이 lexeme의 採取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 點에서 큰 進展이라고 생각된다.

니」의 卑語 내지 틀린 말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아직 그 正確한 규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아재」는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하게 語意가 分化되는 단어임을 곧 알게 된다.

「아저」는 聲調를 고려에 넣지 않는다면 대개 같은 形態로 全國 꽤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듯하다.(16) 따라서 形態面으로 보면 「아재」는 方言 分布上 관심거리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아재」는 形態는 같으면서도 그 意味에 있어서는 方言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화를 일으키는 어휘다. 形態는 같으면서 意味에 있어서는 分化된다는 이것이 바로 「아재」가 갖는 한 特殊性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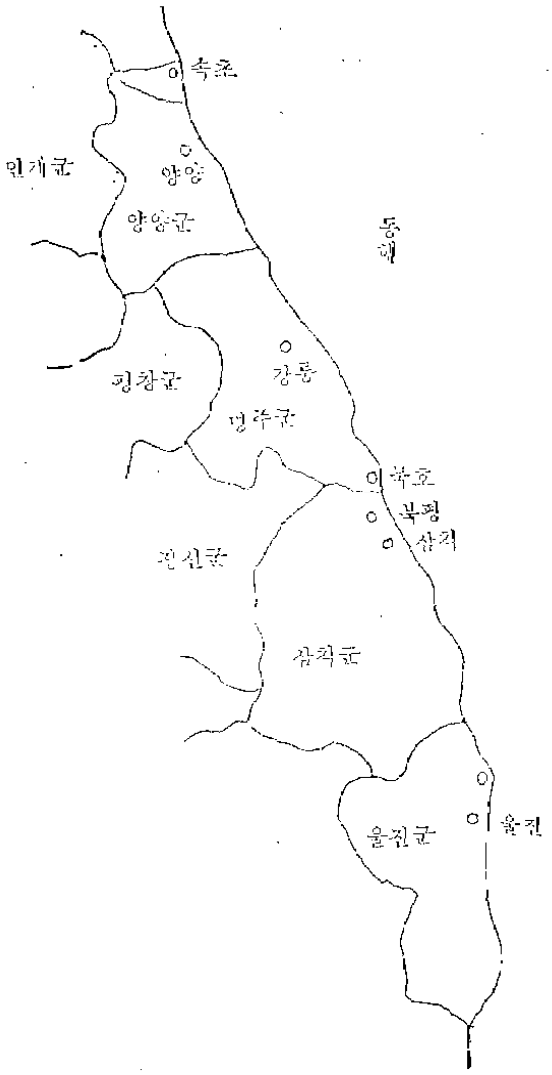
우리는 이것의 具體的인 현상을 江原道의 襄陽郡, 溟洲郡(江陵市 포함, 앞으로 이 郡·市를 묶어 江陵이라 略稱하겠다.), 三陟郡, 그리고 지금은 慶尙北道에 편입된 蔚珍郡 등 嶺東地方의 4個郡에서 보아 가기로 하겠다(17).

上記 4個郡 안에서의 「아재」 語意의 한 分界線은 三陟郡 近德面의 두 동리 사이에 있는 듯하다. 近德面의 面所在地인 交柯里와 그 바로 북쪽에 있는 下孟芳里가 그 동리인데, 이 두 동리는 2km나 될까말까한 거리에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런 地理的 장애도 없는 바로 이웃한 마을이다. 그런데도 交柯에서는 「아재」가 시동생의 意味를 가지는데 反해서 孟芳(下孟芳里를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에서는 고모(친고모 및 고모뻘 여자)의 意味를 가지는 實로 커다란 方言 差異가 이 두 동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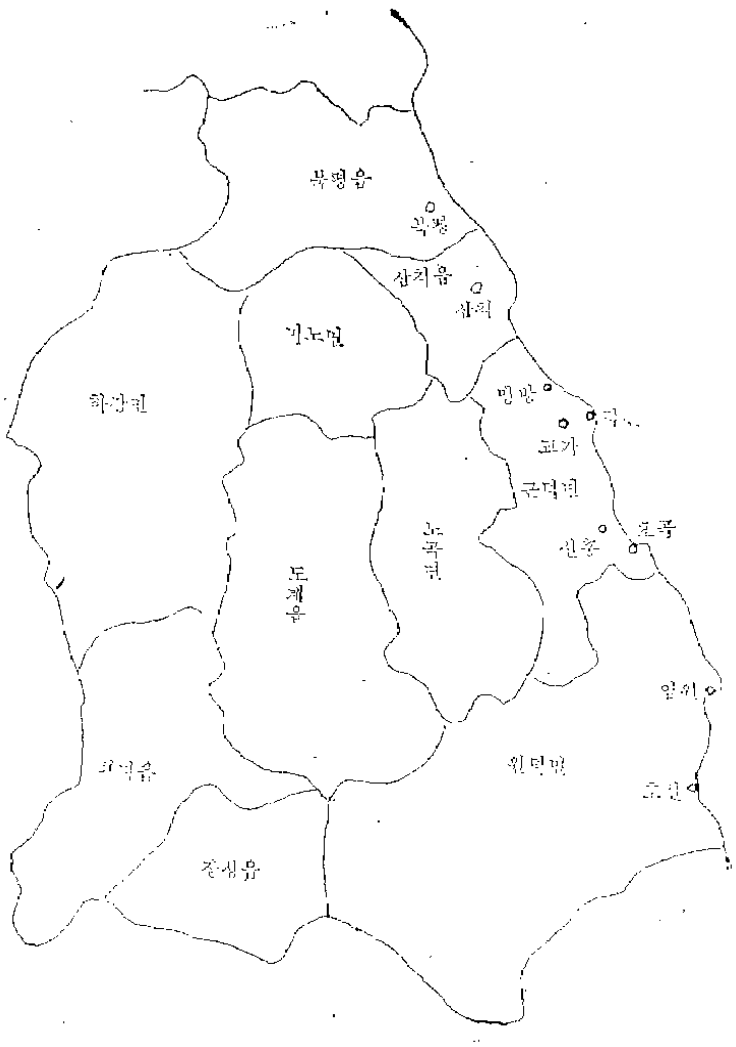
(16) 적어도 「아재」의 形態는 江原道, 慶尙道, 全羅道 및 咸鏡道, 그리고 京畿道 一部에서 확인되는 듯하다. 聲調를 고려하면 「아재」로 되는 지역과 「아재」로 되는 지역이 있어 形態가 同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方言集에 依하면 「아제」로 實現되는 곳도 있는 듯하나 우리는 일단 「아재」 한 形態인 것으로 看做하고 形態의 차이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다.

(17) 이 4個 郡에서의 調査地點 選定은 郡所在地를 피하여 그 바로 이웃 面에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提報者는 모두 50代 이상의 老年層에 限定되었다. 本稿의 資料는 기간으로는 1970년 여름부터 1976년 2月에 걸치나 그 사이에 空白期間이 꽤 있었다. 애초 「아재」만의 문제를 따로이 다룰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資料에 未洽한 점이 꽤 있는 줄로 안다.

〈지도 1〉 嶺東4個郡圖



〈지도 2〉 三陟郡圖



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두 동리 사이의 言語分化의 要因에 대해서는 後述하겠다.)

이렇게 交柯와 孟芳 사이를 分界線으로 한 「아재」의 語意分化는 南北으로 뻗쳐, 우선 고모로서의 意味는 北으로 퍼져 江陵에서도 확인되며 襄陽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몇분의 提報에 의하면 咸鏡道에서도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시동생의 意味는 南쪽으로 뻗쳐 近德面의 南端인 善興里(宮村里 善興洞)[18]에서도 확인되며 훨씬 남쪽인 蔚珍郡 遠南面 基陽一里에서도 확인된다.

(18) 善興은 얼마전까지 宮村里의 한 마을 이름이었다가 최근 새마을 單位로 細分되면서 里로 승격된 마을이다.

그러나 「아재」의 意味는 그렇게 二分되는 式으로 단순치만은 않은 것 같다. 당장 蔚珍(基陽一里)에서만 보아도 「아재」는 시동생을 의미하는 外에 叔父(그것도 旣婚者에 限함)를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고모부를 뜻하기도 한다. (基陽一里에서는 숙모와 고모를 다같이 「'아지미」라고 한다. 따라서 이곳의 「아재」는 「'아지미」의 男便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孟芳 북쪽에서도 江陵 및 襄陽에서는 「아재」가 고모 (乃至 고모뻘 여자) 이외에 이모를 가리키는 등 복잡하게 얽혀 나간다. 그리고 江陵과 襄陽에서는 「아재」가 旣婚 未婚을 가리지 않고 고모를 뜻하는데 比해 孟芳에서는 旣婚者를 「'아재」라 하여 聲調로서 未婚의 「아재」와 區別하는 特異性도 보여 주고 있다. 거기다가 襄陽(巽陽面 鶴浦里)은 고모 이모 이외에 未婚의 叔行(및 시동생) 까지를 「아재」라고 함으로써 江陵·孟芳 以北의 要素와 그 以南의 要素를 함께 共有하고 있는 特異性을 보이기도 한다.

以上만으로도 좁은 지역 안에서의 意味 分化치고는 꽤 多岐한 것임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以上은 農村에 국한된 叙述일 뿐 漁村에까지 확대해 보면 그 分化相이 훨씬 복잡하여 우리를 더욱 경탄케 한다.

가령 蔚珍의 경우를 보면, 같은 遠南面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漁村 島山二里(草山)에서의 「아재」는, 農村에서 旣婚의 叔父를 가리켰던 것과는 달리 未婚의 叔父를 가리키며, 또 農村에서처럼 고모부를 가리키는 일이 없다. 다만 시동생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만 공통성을 가질 뿐이다.

한편 三陟에서도 사정은 비슷하여, 같은 近德面 內에 있는 두 대표적인 漁村인 草谷里와 德山里를 例로 보면, 이웃한 두 農村(善興里와 交柯里)과 「아재」의 用法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동생을 가리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農村에서와는 달리 未婚의 시동생은 「'되림」이라고 하여 旣婚者를 지칭하는 「아재」와 區分하는 점이 다르고, 더구나 「아재」로써 叔父를 가리키는 일은 農村에서는 없던 현상이다. (「아재」가 叔父의 意味를 가지는 점에서 三陟의 漁村은 오히려 三陟 農村보다

蔚珍의 農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비록 蔚珍의 農村은 既婚者를 가리키고 三陟 漁村은 그 경우를 「'삼촌」이라고 稱하여 未婚者「아재」와 區分하는 不一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漁村에서의 「아재」의 用法이 이웃 農村과 다른 현상은 江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앞에서 江陵 農村에서의 「아재」의 意味는 고모 및 이모라고 했다. 그러나 이웃 漁村, 가령 溟州郡 沙川面 沙川津一里에서의 「아재」는 未婚의 叔父(및 未婚의 시동생, 既婚의 시누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襄陽의 漁村(巽陽面 鰲里山)에서는 그 이웃 農村과 대체로 같으나 이모나 既婚의 고모를 「아재」라 하지 않는 점에서 역시 차이를 보여 준다. 以上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대략 다음 〈그림 1〉과 같이 될 것이다.(19)

〈그림 1〉

	농촌	어촌
양양	▽ ▼ ◐	▽ ◐
강릉	▽ ▼	◐
北삼척	▽ ▽	?
南삼척	○	○ ○
울진	○ ◐ ◐	○ ○

(凡例) ▽ 고모 ▼ 이모
○ 시동생 ◐ 삼촌 ◐ 고모부
○▽ 기혼 ○▽ 미혼

3

위의 表는 「아재」가 좁은 지역 안에서도 지역 또는 직업이 바뀜에 따라 얼마나 敏感하게 語意 分化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一目瞭然하게 보여 준다. 이는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에서의 言語 分化의 모습을 아는 데에 있어,

(19) 北部 三陟 지방(孟芳 以北을 그 以南과 區別하여 이렇게 부르겠다.)의 漁村은 調査地點으로 選定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孟芳 以北이 그 以南과 다른 方言圈을 이루리라는 것을 짐작 못한 때문이었다. 뒤에서도 이야기되지만, 필자가 孟芳을 調査地點으로 擇한 것은 交柯 以南과의 차이를 比較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交柯가 調査地點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던 前日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草谷과 孟芳을 同一 方言圈에 있는 것으로 알고 孟芳을 農村의 代表로 選定하였던 것이었는데, 孟芳에서의 調査 結果, 草谷과 孟芳의 言語差가 단순히 同一 方言圈의 農村, 漁村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善興을 다시 調査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는 方言境界線을 긋는 일에 있어 「아재」가 중요한 한 몫을 할 수 있으리라는 暗示도 되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아재」는 사실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에 중요한 몫을 하여 주었다. 그것은 우선 「아재」의 意味 分化의 分布가 다른 諸要素(音韻·文法·語彙)에 依한 同一 地域의 方言區劃과 대체로 一致함에서 그러하였으며[20], 더우기 필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方言區劃의 한 可能性을 이 「아재」가 占처 주기까지 했다는 데서 그러했다. 「아재」는 필자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한 試錐棒이었다고 할 만하다.

그것은 우선 漁村 言語의 特殊性을 試驗하는데 쓰였다. 海岸 가까운 農村에 가서 方言調査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개 체험했으리라 짐작되지만, 農村 提報者들은 자기들의 말과 이웃 漁村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意識 强하게 지적하곤 한다. 필자는 그들의 이 方言差에 대한 意識이 여러 지역에서 한결같이 대단히 强한 것을 알고 漁村 方言의 조사에 着手했거니와 이러한 着手를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아재」였다.[21] 앞에서 보았듯이 江陵 農村에서의 「아재」는 고모·이모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漁村에서는 未婚의 叔父를 가리키는 말로 쓰임을 발견했을 때의 필자의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처음에 漁村言語의 特殊性을 들었을 때는 거센 억양, 거센 말투 정도의 邇邊的인 것이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처럼 決定的인 語彙資料에서의 差異를 발견하고서는 漁村 言語에 대한 認識을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漁村 言語에 着手해 본 결과 그것과 이웃 農村의 言語와의 차이는 豫

(20) 이 지역의 자세한 方言區劃은 아직 發表된 바 없으나, 概略的으로 말해서 우선 郡 單位로 襄陽方言圈, 江陵方言圈, 三陟方言圈, 蔚珍方言圈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下位分類는 지금 「아재」의 語意分化가 보여 주는 것과 一致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1) 이 一端이 拙稿, 「江陵方言의 形態音素論的 考察」(震檀學報 34號, 1972) p. 101에 發表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서는 三陟·蔚珍의 「아재」 意味가 부정확하게 記述되어 있어 是正을 要한다.

想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그리고 이 作業에서 얻는 所得은 실로 크고 興味로운 것이었다.(22) 우연이라면 우연으로 이러한 所得을 가지도록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아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재」의 공헌은 크다 할 것이다.

위와 비슷한, 그러면서도 그 결과는 얼마간 다른 경험을 필자는, 上述한 三陟郡 近德面의 두 이웃 동리인 交柯里와 下孟芳里에서 하였다. 이 두 동리는 上述한 대로 가까운 거리에 接해 있어 겉보기에는 전혀 言語分化가 일어날 素地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交柯의 몇몇 提報者는 孟芳의 말이 極微하나마 자기들의 말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 주지만 그 또한 너무 가벼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필자가 1976년 2월에 三陟의 漁村(草谷)을 조사하면서 孟芳을 調査地點으로 擇했던 것은, 그 以前 두 차례의 交柯에서의 調査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여,(23) 보다 傳統的이고 一姓集團的인 地點으로 바꾸어 보려고 한 것일 뿐 交柯 以南(本稿에서 이르는 南部 三陟)과의 어떤 方言差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

(22) 이 結果는 「韓國 漁村言語의 社會學的 考察」이란 題目으로 따로이 발표된다. 여기서는 다만 參考삼아 몇가지 實例만 들어 두겠다.

	農村(善興)	漁村(草谷)
처 마 :	'ㅊ애	'ㅊ마
집마루 :	대궁마리	용마람
변 소 :	정낭	뒤깐
조 리 :	'ㅉ고리	조:리
쟁 기 :	후쩡이	'ㅉ겡기
뒤 밥 :	투배기	포:디기
냉 이 :	나셍이	나상우

以上이 어휘에서 차이를 보이는 몇 例다. 여기서도 兩者 間의 方言差가 큼이 드러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차이를 强力하게 表出시켜 주는 것은 音韻의 차이다. 農村(善興 및 孟芳)에서 分立 對立되는 "ㅡ"와 "ㅓ"가 漁村(草谷 및 德山)에서는 對立을 잃고 한 音韻으로 묶이며, 農村에서는 "ㅚ, ㅟ"가 〔ϕ, y〕 單母音으로 발음되는 것이 漁村에서는 〔w〕音을 가볍게 同伴하는 二重母音으로 발음되는 것이 그것이다.

(23) 交柯里는 面所在地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背景(가령 과거 驛村이었다는)까지 곁들어서인지 꽤 산만한 地點이어서 만족스러운 提報者를 만나기가 무척 힘든 곳이었다.

다. 그러던 중 발견된 것이 「아재」의 意味 差異—— 그것도 고모와 시동생이라는 너무도 큰 差異였다. 그리고 이 「아재」 이외에도 孟芳을 南端으로 한 그 以北이 그 以南과 작으나마 方言差를 가지는 것이 이 調査에서 드러난 것이다.(24)

그러니까 「아재」의 意味 分化는 그것이 어떤 다른 言語 要素의 分化보다도 敏感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即 조그만 方言差라도 생기는 곳이면 「아재」의 意味差도 으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단일 어느 두 集團이 方言的으로 分化되는지 아닌지의 與否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아재」가 그 두 集團에서 同一한 意味로 쓰이느냐 않느냐 부터 試驗하여 보라고 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은적 어도 嶺東地方에서는 적절하게 들어 맞는 말이었다.

4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처럼 方言 硏究에 寄與度가 큰 「아재」의 存在가 그동안 왜 그처럼 오래 햇볕을 보지 못하였는가 하는 문제로 한번 더 눈을 돌려 보고자 한다.

이 글 序頭에서 이미 종래 方言調査方法에 있어서의 결함을 충분히 검토하였거니와, 그같이 표준어의 어떤 어휘의 짝이 되는 方言形을 찾는 일에 汲汲하면서는 「아재」의 面目이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想起코자 한다. 특히 「아재」의 分化는 形態上의 分化가 아니라 意味上의 分化라는 特殊性을 갖는 만큼 여간 많은 項目을 준비해 가지고 가

(24) 2,3年 前의 交柯에서의 조사가 불충분하여, 이번 調査된 孟芳과 善興 두 동리의 方言差 몇 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孟芳	善興
문 빗 장 :	저저구	'ㅐ짱
키 :	치	챙이(~치)
자두(小) :	'ㅙ	ㅙ:기
깜 부 기 :	깜부기	깜메기(~깜부기)
물 개 :	물개〔mulgɛ〕	해:래

(이번 調査時 「아재」의 意味만은 交柯에서도 다시 調査되었다. 그런데 대체로 交柯는 善興形과 孟芳形이 共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 않는 限 그 복잡하게 얽히는 多樣한 意味가 제대로 採取될 수 없으리라는 점을 明白히 해 두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逆質問法(reverse question)[25]이라는 質問法의 한 가지 方式이 導入될 必要性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즉 意味를 먼저 주고 그 形態를 캐는 것이 아니라, "「아재」란 말 쓰시지요? 누구보고 「아재」라고 합니까?" 式으로 形態를 먼저 提示하고 그 意味를 캐는 方式을 통하여야만 「아재」의 面目이 제대로 캐어지리라는 것이다.

「아재」 이외에 순전히 이 逆質問法이 필요한 어휘로 어떤 것이 또 있는지 현재로서는 잘 알 길이 없다. 다만 同 系列의 것이 찾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例로 「쟁기」라는 어휘를 들 수 있다. 東海岸의 경우 「쟁기」는 同一 形態로 여러 지역에 나타나면서 그 意味에 있어서는 差異의 어떤 한 種類만을 뜻하는 경우와 農具 全般을 가리키는 경우로 分化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逆質問法은 「아재」와 같은 극단적인 어휘를 조사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隨時로 採用해서 좋은 質問法이라고 생각된다. 한 方言에 얼마간 익숙해진 다음 이 質問法을 통하여 意味를 좀 더 자세히 캐면, 序論에서 지적했던, 너무 쉽게 1對1의 對當關係를 믿어 버림으로써 惹起되었던 不正確한 對比를, 그 결함을 줄여 갈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5

여기서는 저 앞에서 뒤로 미루어 두었던 三陟 交柯里와 下孟芳里 사이의 言語分化 및 農村과 漁村의 言語分化 문제를 잠깐 부연해 論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 交柯와 孟芳 두 마을이, 다른 方言差는

(25) reverse question에 대해서는 Harold Orton, An English Dialect Survey: Linguistic Atlas of England (H. Hungerford et. al. eds., English Linguistics, 1970, pp. 217-27)을 참조하기 바람. 이에 대해서는 上揭 拙稿(1972) p. 100에서도 잠시 言及한 일이 있으나, 逆質問法이란 譯語는 이번에 처음 試圖해 보았다.

대단한 것이 없지만 「아재」의 意味에서 區分되는 곳임을(그리고 그만큼 「아재」의 語意 分化는 方言分化의 한 先頭에 서 있음을), 그리고 두 마을 사이에는 아무런 地理的 장애도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점 農村과 漁村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觀心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고 地理的 장애도 없는 마을들 사이에서 言語의 分化를 誘發시킨 要因이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이 두 言語集團을 言語的으로 가깝게 만들고 멀게 만드는 要因은 여러가지로 指目되고 있다. 地理的 장애, 政治(行政)的인 與件, 歷史的인 背景, 宗教 등등. 그러나 이런 것을 한마디로 集約하면 한 言語集團의 餘他 集團과의 交涉의 頻度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6]

이 點에서 한 言語集團의 社會的 特性을 파악하는 일은 方言硏究에서 대단히 중요視되는 일이거니와(그리고 이처럼 言語를 社會的 테두리에서 파악하고 그 兩者의 관계를 究明하려는 노력이 이른바 sociolinguistics의 이름밑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거니와) 필자는 특히 韓國과 같은 傳統社會에서의 이 方面의 考究는 더 큰 뜻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이 方面으로 몇 가지 試圖를 계속해 오고 있다.[27]

그 중 하나가 通婚圈을 調査·參照하는 일이다. 이 方案은 通婚에 依한 集團間의 交涉이 거리가 먼 集團間에서는 활발치 않아 너무 넓은 지역을 對象으로 했을 때는 效果를 얻기 어렵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集團間의 交涉關係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

(26) 이것을 Bloomfield의 表現으로 바꾸면 differences in the density of communication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J.J. Gumperz, Dialect Differences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a North Indian Village (Language in Social Groups, Essays by J.J. Gumperz,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1, pp. 25-47)을 참조하기 바람.

(27) 그 결과의 하나가 拙稿, 「全羅北道 東北部 地域의 言語分化」(語學硏究, 6.1 1970)이다. 여기서는 主로 都賣商들의 去來地, 進學하는 上級學校 所在地들을 調査하여 社會集團間의 牽引力을 測定하고 그것과 言語 分化와의 相關關係를 확인해 보았었다.

은 특히 通婚 일이 상당히 뿌리 깊은 傳統을 지니어서 서로 通婚되는 相對가 固定性을 띠고 있음에서 그러하다고 판단한다.

現地에 가 보면 대부분 자기들의 通婚圈이 대체로 어디어디라고, 그 固定性을 强調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統計上으로도 立證됨을 볼 수 있다.

本稿의 성격상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지만 필자는, 대개 戶籍에서 戶主의 妻의 본적으로 通婚圈을 파악하는 方式을 쓰고 있다. 그 결과 漁村은 農村과 通婚관계를 맺는 일이 드물고 南北으로 길게 海岸을 따라 漁村끼리 通婚 관계를 맺는 일이 일반적임이 드러났다. 이것은 現地住民들의 이야기와도 一致하는 바인데 蔚珍郡 遠南面 烏山一里를 例로 보면 같은 烏山이 57名, 이웃 面(北쪽)인 近南面의 漁村인 進福里가 18名, 山浦里가 16名, 역시 이웃 面(南쪽)인 箕城面의 望洋里가 7名, 沙銅里가 6名, 箕城里가 9名, 邱山里가 6名 등으로 활발한 交涉을 나타낸다. 그리고 더 멀리 平海(9名), 迎日(2名)까지도 내려가며 濟州道(1名)도 있다. 그리고 北으로도 北坪의 楸岩(1名), 墨湖(1名), 襄陽郡 南涯(1名) 등의 漁村과 交涉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反해 農村과는 같은 遠南面 內의 梅花里(面所在地)와 1名, 金梅里와도 1名, 新興里 2名, 그리고 基陽里가 많아서 5名일 뿐, 전혀 交涉이 없는 동리가 있고, 특히 이웃 面이나 멀리 隔해 있는 面의 農村과의 交涉은 더욱 찾아 보기 어렵다.

同一 面內의 農村과의 通婚이 9件인데 比해 이웃 2個 面의 漁村과의 通婚이 64件이라는 이 엄청난 차이는 漁村 社會의 特殊性을 너무도 如實히 보여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社會的 特殊性, 다시 말하면 社會關係에 있어서의 漁村과 農村 間의 차이가 漁村言語를 農村言語와 차이나게 만든 가장 直接的인 要因이라고 믿는 것이다.

한편 三陟郡 近德面 下孟芳里의 言語的 特性도 역시 그 社會的 特性

과 관련시켜 설명될 수 있어 보인다. 孟芳으로 出嫁 온 女子(168名)의 본적別 分布를 보면, 같은 面內로서 孟芳 南쪽 지역이 27名(이 중 交柯가 9名), 그리고 南쪽으로 이웃 面인 遠德面이 6名, 西쪽과 南쪽에 자리잡은 盧谷面이 14名이며, 孟芳 北쪽 지역으로는 이웃 邑인 三陟邑이 22名, 이 三陟邑을 뛰어 넘어 北坪邑이 42名, 그 옆 未老面이 5名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한마디로 孟芳이 北指向的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特히 北坪과의 활발한 交涉은, 그 사이의 三陟邑보다도 倍에 達하는 것이어서 異例的이며 注目을 끈다. 이것은 現地住民들이 자기들은 主로 北坪과 通婚관계를 맺는다는 말과도 一致하는 것으로 특히 善興과 비교하여 孟芳은 한마디로 北坪指向的이라 할 만하다. 善興은 111名 중 北坪이 4名에 不過하다. 孟芳이 社會的으로 이렇듯 北쪽으로 牽引된다는 것이 孟芳에서의 「아재」의 意味가 고모와 같이 北쪽 系列이었던 바로 그 까닭을 설명하는 解答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추측의 단계이지만, 集團間의 社會關係도 그 성질上 몇가지로 區分될 것인바, 그 성질에 따라 言語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가령 어떤 通商관계로 交涉이 잦다면, 그 物品들의 이름에서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通婚에 依한 交涉이 잦다면 女子들이 쓰는 器具 이름 등에서 영향이 더 클 것이 짐작된다.[28] 그런 意味에서 「아재」와 같은 家族稱號는 역시 通婚圈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편의 어휘라 짐작되며, 따라서 以上에서 본 通婚에서의 이끌림과 言語에서의 이끌림의 一致는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言語 현상과 社會 현상이 긴밀한 相關性을 가진다는 사실의 一斷面을 보았다고 믿는다.

---

(28) 이런 點에서 方言 分化를, 基礎어휘(basic vocabulary)와 文化어휘(cultural vocabulary)로 分離해서 관찰하는 일은 試圖해 봄직한 뜻 있는 일일 것이다.

6

여기서 우리는 社會集團間의 社會關係가 言語에 반영되는 외에 餘他 文化 類型에도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 잠시 論議해 보고자 한다.

言語의 分化와 平行·一致되는 어떤 文化 類型에서의 分化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이 自體로서도 興味있는 硏究課題이겠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그것이 方言區劃에 좋은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重視하고자 한다. 等語線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한 곳으로 등처 두꺼운 束을 이루는 경우란 드물다. 이 특징은 이쪽으로, 저 특징은 저쪽으로 그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方言區劃은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좋겠다 정도이지 이래야만 된다는 것은 기대키 어려운, 自信滿滿하기가 매우 어려운 作業이 아닌가 한다. 이럴 때 만일 우리에게 言語地圖에 맞먹는 民俗地圖 같은 것이 있다면 方言區劃에 조금이라도 더 自信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필자는 자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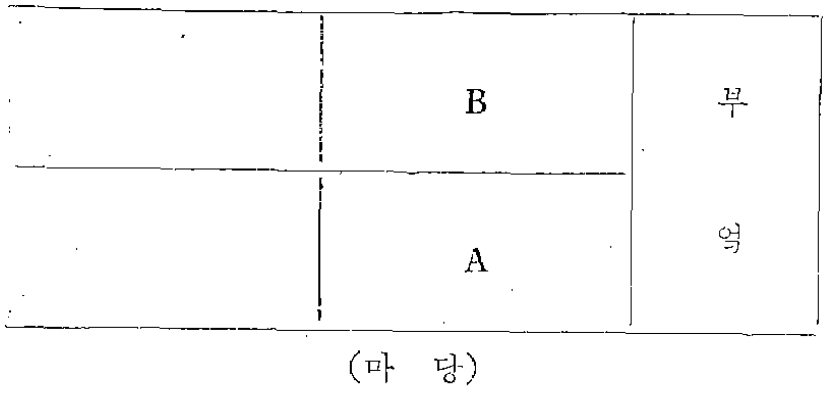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文化 類型에 있어서의 分化는 言語만큼 小單位로 이루어지는 일이 드문 것 같았다. 그 傳播力이나 傳統性이 더 强하다고 할까 한 文化圈은 대체로 한 方言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그리하여 특히 좁은 지역 內에서의 文化 類型의 分化에 대한 考慮는 方言區劃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그 중 몇가지는 上記 嶺東地方 4個郡 안에서도 퍽 有益한 것이었다.

그 중 하나는 婚禮에 있어서의 分化다. 嶺東地方은 우선 婚禮의 차이로 二分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나는 결혼 前에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婚需를 보내는, 그리고 同時에 첫날밤을 신랑집에서 자는 地域이며, 다른 하나는 婚需 보내는 일이 없고 첫날밤을 신부집에서 자는 風習을 가진 地域이다. 대체로 前者는 三陟 以南, 後者는 江陵 以北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江陵의 경우 漁村은 前者型의 風習을 지켜 이 面에서도 農村과 구별되며, 言語的으로도 그렇듯 南쪽의 영향을 農村보다

强하게 받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이 婚禮 風習보다도 言語分化와 더욱 밀접한 相關性을 보여 주는 것은 民家의 家屋構造였다. 家屋構造 面에서 嶺東地方은 홑집이 아니라 겹집이라는 共通性을 가진다. 그러나 같은 겹집 構造에서도 특히 다음 〈그림 2의〉 A가 무엇이냐에 따라 差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方言圈과 상당히 平行·一致됨이 우리의 注目을 끈다[29].

〈그림 2〉



즉 江陵 農村의 典型的인 家屋은 A가 으레 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들」이라 부른다. 이에 比해 漁村에서는 A는 마루로 되어 있고 「봉당」 또는 「마룽」이라 불린다. 그리고 대신 B를 「구들」이라 부른다.

三陟 孟芳은 A가 방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큰방」이라 부른다. 이에 反해 그 바로 이웃 동리 交柯와 그 남쪽의 善興은 A가 마루로 되어 있고 그것을 「마리」라 부른다.[30]

이것은 저 앞에서 보았던 方言差와 대단히 잘 부합됨을 보여 준다. 더구나 孟芳이 「아재」를 고모의 意味로 씀에서 北쪽 指向的이었던 현상과 〈그림 2〉의 A를 방으로 함에서 역시 北쪽 指向的임은 퍽 큰 興味를 불러 일으켜 준다. 이러한 家屋構造와 言語間의 平行·一致는 다음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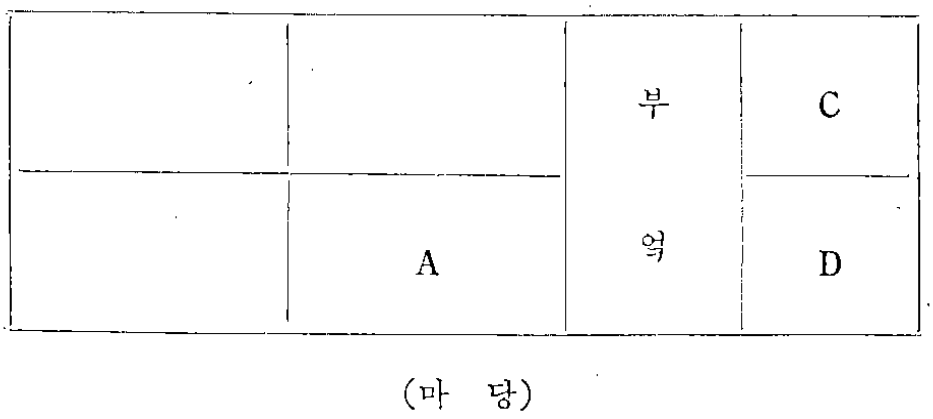
즉 孟芳은 A를 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江陵과 공통되지

(29) 여기서의 家屋構造 그림은 아주 概略的인 것으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을 論議의 대상으로 삼겠다.

(30) 뒤에 곧 밝혀지듯 孟芳 및 交柯·善興의 民家는 〈그림 2〉는 〈그림 3〉의 構造를 가진다. 그리고 下孟芳里는 海風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부엌이 대부분 西便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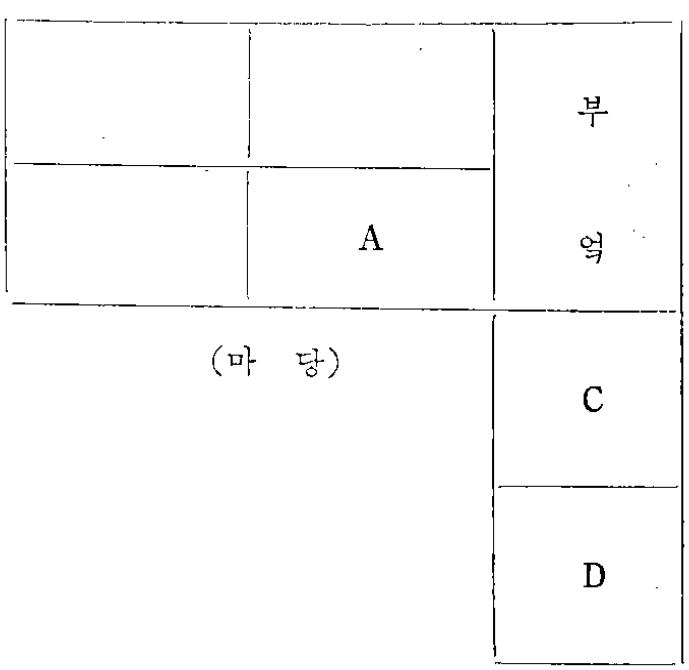
만 그렇다고 두 곳의 家屋構造가 아주 같은 것은 아니다. 그 差異는 다음 〈그림 3〉과 〈그림 4〉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위 그림 중 〈그림 3〉이 孟芳의 家屋構造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개 C를 광(그것을 「고방」이라 부름)으로 쓰고 D를 방 아니면 외양간으로 쓴다. (방으로 쓸때는「정짓방」으로 부르며 외양간으로 쓸 때는「마:구깐」이라 부른다). 이에 比해 江陵 農村은 광이나 외양간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면 〈그림 2〉의 모양이 되지만 일단 가진다면 〈그림 4〉의 構造를 갖추게 된다. 역시 C가 광, D가 외양간으로 쓰이는데 이들은 各各「고간」과「마:구」로 불린다. 그리고 D가 없고 C가 「마:구」로 쓰이는 일도 있다.

〈그림 4〉



그런데 이러한 家屋構造의 差異가 A의 공통성과 관련해서 더욱 興味롭다는 것은 孟芳이 言語的으로 그 以南과 구별되는 點이 있고 그래서 北쪽 指向的이라고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三陟方言圈에 속하여 江陵方言圈과 對立되는 것이었는데,[31] 이 家屋構造에서도 바로 그러한

(31) 註(20) 참조.

點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A가 방으로 되어 있는 점은 江菱 및 北坪과 공통되지만 C, D의 構造는 그 以南(交柯 및 善興)과도 공통되고 北坪과도 공통되어 전체적으로 三陟 공통의 構造인 것이다. 그러니까 孟芳은 전체적으로는 三陟圈에 屬하면서 그 一部는 江陵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特性이 方言과 家屋構造에서 共通的으로 立證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民俗地圖의 必要性을 論했지만 여기서 다시 그 일을 換起해 두는 것이 좋음직하다. 孟芳이 그 以南과 極微한 方言差를 가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과연 어떤 性質의 것인지—— 提報者의 個人的인 差異인지, 어떤 偶發的인 差異인지, 아니면 調査方法이 나빠 不正確하게 調査된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上記한 家屋構造의 差異와 같은 文化 類型에서의 平行的인 差異는, 저 앞의 社會的인 背景에서의 差異와 함께 우리에게 그 極微한 方言差도 偶發的이 아닌 매우 근거 있는 要因에 依해서 發生한 것임을 알려 주고, 그로써 그 方言差를 信賴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만들어 준다. "信賴를 가지고" 方言 資料를 다루게 해 준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文化 類型에 관심을 가질 때 기대를 거는 가장 큰 機能일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 일에 努力을 기울이는 가장 직접적인 理由일 것이다.(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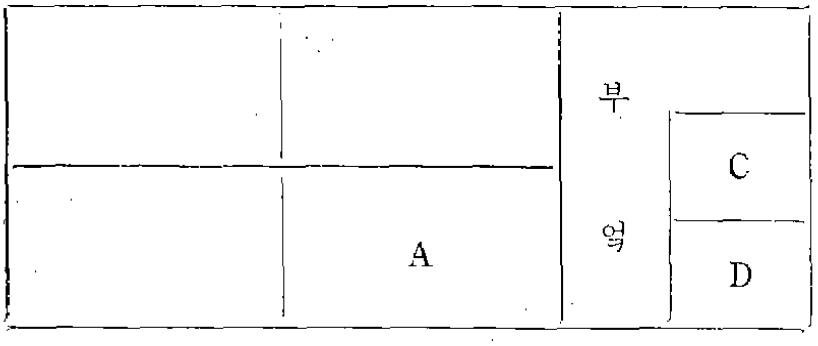
끝으로 三陟의 漁村과 蔚珍의 家屋構造를 마저 보임으로써 例의 嶺東地方에서 方言差와 家屋構造의 差異가 밀접히 平行·一致된다는 사실을 더욱 確固히 하고자 한다.

〈그림 5〉가 대개 三陟漁村의 家屋構造라고 할 수 있다. 農村에 比해서 C 및 D가 뒤안까지 연결되지 않고 부엌 中央쪽에서 끊긴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외양간이 있는 경우엔 C가 「고방」 「D」가 「마:구」로

(32) 方言 硏究에 있어서 그 社會·文化的 背景을 함께 考察하는 일의 必要性에 대한 一般論에 대해서는 A. McIntosh, Introduction to a Survery of Scottish Dialect (Edinbugrh, 1961)의 第2章 Dialect Study in its Wider Setting을 참조할 것.

쓰이나 그렇지 않으면 D가 「정짓방」으로 쓰이고 또 C, D가 하나로 되어 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았다.

〈그림 5〉



(마 당)

그런데 蔚珍의 家屋들은 대개 〈그림 5〉와 같은 構造를 가진다. 그러나 蔚珍에서는 C, D가 分離되지 않고 하나이며, 그것이 방으로 쓰이지 않고 「마:우」('외양깐')로 쓰임이 三陟 漁村과는 다르다. 그리고 三陟은 農村에서나 漁村에서나 변소가 하나뿐이어서 男女 共用인데 比해서 蔚珍 農村에서는 이것이 하나는 부엌 便(女子用), 하나는 사랑 便(男子用)으로 區分된다는 것도 두드러지는 한 差異다[33].

그러나 어떻든 〈그림 5〉에서처럼 C, D가 부엌 中央에서 끊겨 뒤안 쪽까지 연결되지 않는 共通點을 三陟 漁村과 蔚珍 農村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재」의 意味에 있어 다같이 삼촌을 가리키는 점에서 共通되어 三陟 農村과 區別되던 點과 너무 잘 對應이 되어 興味를 더해 준다. 그리고 「아재」의 意味 하나만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두 곳이 一致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家屋構造에서도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는 위에서 보았다.

이러한 對應은 襄陽郡의 家屋構造에서도 例外는 아니다. 양양 農村의 民家는 〈그림 4〉를 기준으로 본다면, D가 없고 C가 「마:구」로 쓰이는데, 그것이 〈그림 3〉과는 달리 기역字로 꺾인다는 점에서 강릉 農村의 民家와 공통점을 가진다. 삼척 農家와 비교했을 때의 강릉·양양 農家의 공통점은 이 이외에도 변소가 男子用과 女子用이 分離되어 있다든가

(33) 대개 女子用은 벽에 붙여 짓고 男子用은 집과 떨어지게 짓는다. 男女用이 分離되지 않는 三陟, 또는 江陵 漁村에서는 後者의 方式을 取한다.

부엌 (「정지」) 및 「마ㅣ구」의 바깥편을 「정지밖」이라 하여 중요한 空間으로 쓰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양양 農家는 A가 마구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릉 農家와는 區別되며 오히려 삼척 農家와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좀 억지로 附合시키려는 印象까지 주나, 사실 이러한 家屋構造의 특징은 양양에서의 「아재」의 意味가 江陵的인 要素와 南部 三陟 以南의 要素를 共有하고 있었던 것과 그대로 附合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疑問 하나는 왜 江陵은 言語로나 家屋構造로나 襄陽과 三陟 間의 연결을 그 사이에 끼어 방해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順理 같아서는 江陵은 襄陽과 三陟의 中間的인 성격을 띄울 만한데 오히려 그 연결을 막고 있는 듯한 이 現象이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할지 현재로서는 좋은 解答이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만 家屋構造가 言語의 分化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으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取하여 두고자 한다.(양양의 漁村의 民家는 변소가 男女 共用으로 하나뿐이라는 점 이외엔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家屋構造에의 考慮는, 비록 이 지역과 같지는 못하더라도 餘他 地域에서도 方言硏究에 어떤 결정적인 寄與를 하리라는 期待를 필자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家屋構造 이외에 이러한 寄與를 할 民俗資料를 모으는 일이 매우 값진 일임을 이 자리에서 再三 强調해 두고 싶다.

7

以上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注目받아 본 일이 없는 「아재」라는 한 親族關係 語彙를 資料로 하여 꽤 장황한 論說을 펴 왔다. 비록 산만한 속에서도 우리는 몇가지 所得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아재」가 形態의 分化가 아니라 意味의 分化에 依해서 方言差를 나타내는 特異한 어휘이며 특히 그러한 分化가 작은 地域을 單位로 지역 지역 일어나는 것이어서 方言 硏究에 寄與가 크다는 사실의

發見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方言差가 形態에 依해서가 아니라 語意에 依해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선 인식케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語意에 依한 方言差가 形態에 依한 것보다 더 信賴度가 큰 것이 아니겠느냐는 意見을 披瀝하고 「아재」類의 掘發의 必要性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런 類의 調査를 위해서는 形態를 먼저 주고 意味를 캐는 소위 逆質問法(reverse question)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從來의 方言調査方法이 너무 「넓게 얕게」主義였음을 反省하였다. 調査項目의 設定에서부터 現地調査에 이르기까지 安易한 踏襲을 계속해 왔음을 反省하였고, 너무 쉽게 표준어와 어떤 方言을 1對1로 對當시켜 왔던 것을 反省하였다.

우리는, 비록 本稿에서 本格的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漁村이 言語的으로 이웃 農村과 區分되는 지역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嶺東地方이 대개 郡 單位로 襄陽方言圈, 江陵方言圈, 三陟方言圈, 蔚珍方言圈으로 區劃됨을 보았고, 三陟方言圈 안에는 近德面 內의 두 이웃 마을인 交柯里와 下孟芳里 사이를 分界線으로 하는 下位方言圈 하나가 形成됨을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方言圈의 形成이 그 社會 文化的 背景과 깊게 얽혀 있음을 보았다. 方言差가 있는 두 곳은 通婚圈의 다름에서 보듯 그 이끌리는 社會集團이 다름이 드러났다. 여기서 우리는 方言差란 결국 社會的인 交涉의 頻度의 差異의 結果임을 확인하였다. 方言差가 있는 두 곳은 家屋構造에서도 철저하게 差異가 나는 것도 우리는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言語의 分化와 文化 類型의 分化가 無關하지 않음을 보았고, 또 그것이 함께 다루어짐으로써 얻어지는 利點을 論할 수 있었다.

「아재」는 本稿에서 다룬 地域 밖의 다른 地域까지 확대해 보면 더욱 많은 문제들을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것만으로도 「아재」의 語意는 더욱 多岐하게 分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意味論的인 側面에서 다룬다면 더욱 값진 所得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期

待된다. 모두 後日로 미루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現地에서 協助해 준 여러 提報者와 關係人事에게 감사한 뜻을 表하고자 한다.